

「유관기관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 개최

✓ 美 금리 인상 전망 확대, AI 인프라 산업 관련 불확실성,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시장상황 점검 및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

금융위원회는 10월 15일(목) 이덕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시장 전문가와 함께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금일 회의에서는 최근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국내 증시 동향과 외국인·기관투자자 수급 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10.15(목) 14:30~ /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 (금융당국·유관기관) 이덕원 금융위원장(주재), 금융감독원 부원장,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예탁결제원 사장, 증권금융 부사장, 국제금융센터 부원장,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본부장, KB증권·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유관기관과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글로벌 금리 상승 전망, AI 반도체 업종의 투자 및 수익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국제유가 상승 등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하락 속도와 수급 측면에서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반도체·방산·조선 등 우리 주력 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양호한 실적을 시현하고 있으며, 외환보유액·경상수지·금융기관 건전성 등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도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되,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과 급격한 쏠림 현상을 경계해야 하며, 투자자들도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중장기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투자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 동향과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장 불안을 틈탄 허위 풍문 유포, 시세조종,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며, 필요한 경우 컨틴전시 플랜을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기로 하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작은 변동성에도 경각심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주문하였다. 아울러, “과도한 부채와 신용에 의존한 투자는 위험하며 이럴 때일수록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금융회사들은 무분별한 신용공여를 자제하고, 고객 보호와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책임자	과 장	고영호	(02-2100-2650)
		담당자	서기관	노소영	(02-2100-2651)
			사무관	남창우	(02-2100-2652)
			사무관	안영비	(02-2100-2656)
담당 부서 <공동>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책임자	과 장	이인욱	(02-2100-2850)
		담당자	사무관	오동헌	(02-2100-2853)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책임자	국 장	박시문	(02-3145-7580)
		담당자	팀 장	박세혁	(02-3145-7590)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책임자	국 장	박상만	(02-3145-8170)
		담당자	팀 장	김은성	(02-3145-8180)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책임자	상 무	진동화	(02-3774-8505)
		담당자	부 장	안일찬	(02-3774-8580)
	예탁결제원 전략기획본부	책임자	본부장	백상태	(051-519-1592)
		담당자	부 장	김정태	(051-519-1535)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본부	책임자	본부장	천성대	(02-2003-9013)
		담당자	부 장	임병태	(02-2003-9100)
	한국증권금융 기획관리본부	책임자	부사장	조영익	(02-3770-8503)
		담당자	부 장	유정훈	(02-3770-8530)
	국제금융센터 국제금융시장분석실	책임자	실 장	윤인구	(02-3705-6214)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재	(02-3705-6226)